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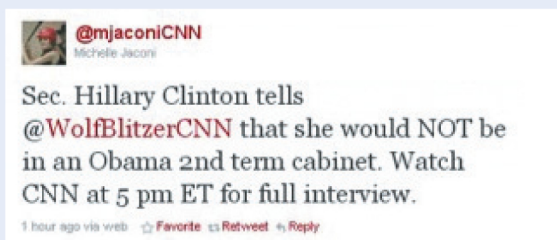


새로운 개척지, 중국의 온라인 광고

세계적으로 큰 광고회사들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온라인 광고시장 정복에 나섰다. Publicis Groupe SA와 같은 큰 광고회사들은 몇 년 전부터 중국시장에 투자를 계속해왔고, 미국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노하우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에 접목하고 있다. 중국의 전체 광고시장 규모는 작년 대비 14.4% 성장한 211억 달러로 보고 있다. 그 중 온라인 광고시장 규모는 25% 상승한 25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Interpublic의 미디어회사인 Magna Global이 발표했다. 참고로 미국의 광고수익은 전년대비 3.4% 성장한 1389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했고, 그 중 인터넷광고는 13% 성장한 257억 달러로 추정했다. WPP Group의 최고 경영책임자인 Martin Sorrel은 “세계 미디어시장 성장의 1/3이 중국에 의해 이뤄질 것”이라고 했으며 “WPP와 Omnicom Group의 경우 중국에 더 많은 디지털 광고회사들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Publicis의 디지털광고 그룹인 Vivaki의 경우 상하이에 있는 Menlo 테크놀로지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웹사이트상에서 광고공간 경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중국 정부의 규제와 외국기업에 대한 견제, 그리고 초기 수준의 온라인광고 기술력과 환경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힐러리 클린턴의 특종인터뷰가 트위터에?



▲ 힐러리 클린턴과의 인터뷰를 트위터에 올린 CNN

미국에서는 메이저 방송사들이 프로그램에 있을 특종 인터뷰를 트위터에 광고(?)하는 현상이 잦아지고 있다. 주요 언론사들의 프로듀서나 직원들이 자사의 특종 인터뷰의 일부 내용이나 방송일정 등을 트위터에 올리고 홍보함으로써 이를 티저광고로 사용하는 것이 트렌드라고 한다. 최근의 대표적인 예로 CNN방송의 WolfBlitzer에 나온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의 인터뷰를 트

위터에 알린 것을 들 수 있다.

CNN의 미첼 자코니 총프로듀서는 자신의 트위터에 힐러리 클린턴의 인터뷰 내용을 살짝 공개하고 오후 5시에 CNN방송을 보면 전체 인터뷰를 볼 수 있다고 전하며 미첼 자코니의 팔로워(Follower)들에게 WolfBlitzer 프로그램을 홍보했다.



소셜 미디어로 광고시청률 Up

최근 미국에서는 많은 광고주들과 관련자들을 모아 주요 광고시장을 파는 행사인 업프론트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었다. 그곳에서 여러 방송국의 경영진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를 강조하며 광고주들에게 어필했다. Nina Tassler CBS 엔터테인먼트국장은 광고주들에게 CBS는 1억 명 이상의 팬을 소셜 미디어 안에서 구축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는 엄청난 자원이라고 말했다. CBS와 Warner Bros가 손잡고 만든 CW Network는 소셜 미디어가 광고주들과 온라인상의 시청자들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전하였다. 그 예로 CW의 경영진은 이번에 도입된 두 가지 소셜 미디어 상품들로 광고를 접할시 시청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 첫 번째로 제휴관계에 있는 모바일 app 개발사인 Shopkick은 CW의 프로그램이 방영하는 동안 시청자들이 광고를 시청하면 app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상품이나 할인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app이 자동적으로 광고의 소리를 인식하여 상품을 제공한다고 함). Shopkick의 최고경영자인 Cyriac Roeding은 “사람들이 TV를 시청하거나 쇼핑을 할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 스마트폰”이라고 말하며 이는 “광고와 시청자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기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소셜 미디어 상품은 ‘Bwingo’라는 온라인 게임이다. CW 프로그램이 방영하는 동안 이 게임을 하면 시청자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이 두 가지 소셜 미디어 상품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DVD나 인터넷 다운로드가 아닌 TV를 통해 프로그램을 보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고 이는 곧 시청자들이 광고를 접하게 하는 기회를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KAA** 유재형 기자 yoojh1999@kaa.or.kr